

본지 주최 5.31 포천시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지역統합 방안 놓고 열띤 공방

본지 주최 5.31 포천시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가 19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기호 1번 열린우리당 시장 후보와 기호 2번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기호 6번 무소속 흥찬기 후보가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관련기사 3면~7면>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 이날 열린우리당 시장 후보와 기호 2번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기호 6번 무소속 흥찬기 후보가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관련기사 3면~7면>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 이날 열린우리당 시장 후보와 기호 2번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기호 6번 무소속 흥찬기 후보가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관련기사 3면~7면>

은 일한 만큼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찬사를 보내줘야 한다”면서 “잘못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개선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기호 6번 무소속 흥찬기 후보는 “사회가 산업화되고 정보화로 접어들면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지만 지역의 정치적 어른이 판단에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포천의 위기라는 것은 포천의 정신적인 지주가 부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흥 후보는 “국회의원과 시장이 어른들이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서로 힘드는 사회로 만들었다”면서 “지도자가 자기 야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올인하기 보다는 지역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포천사회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양주승 본지 자문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국민의례, 기념촬영, 후보자 정견발표, 주제토론, 후보자간 상호토론, 방청객 질문, 후보자 자유발언 등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토론은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과 교통난 해소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돼 참석한 100여명의 방청객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기호1번 시장원 후보, “새로운 정치세력 나서 하나로 묶는 역할”
기호2번 박윤국 후보, “누구나 사심이 없으면 지역통합 가능하다”
기호6번 흥찬기 후보, “국회의원 시장의 통합 노력이 유일한 길”



지난 1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포천시시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시장후보들은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과 '교통난 해소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위 사진은 왼쪽부터 포천신문사 최호열 발행인, 시장원 후보, 박윤국 후보, 흥찬기 후보, 양주승 사회자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열전! 지방선거 운동 시작

시장후보 3·도의원 후보 5·시의원 후보 23명 등록

오는 31일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포천시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는 총 31명으로 집계됐다.

16일과 17일 입후보 등록현황을 보면 포천시시장 후보 3명과, 경기도의원 후보 제1선거구 3명, 경기도의원 제2선거구 2명, 포천시의원 '가' 선거구 8명, 포천시의원 '나' 선거구 5명, 포천시의원 '다' 선거구 7명, 포천시의원 비례대표 3명 등 31명이 등록을 마쳤다.

포천시시장 후보로 등록된 후보는 열린우리당 시장원 후보와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무소속 흥찬기 후보 등 3명이다.

경기도의원 제1선거구 후보로는 열린우리당 박낙영 후보와 한나라당 이우형 후보, 무소속 오병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제2선거구에서는 열린우리당 이희승 후보와 한나라당 이주석 후보가 등록했다.

포천시의원 '가' 선거구의 경우 열린우리당 허청희 후보, 한나라당 이천목 후보, 한나라당 이강립 후보, 무소속 강경희 후

보, 무소속 김민호 후보, 무소속 신동문 후보, 무소속 이종효 후보, 무소속 장승호 후보 등 8명이 등록했으며, '나' 선거구에서는 열린우리당 이병욱 후보, 한나라당 강태선 후보, 한나라당 유성현 후보, 무소속 박경희 후보, 무소속 이부휘 후보 등 5명이 등록했고, '다' 선거구에서는 열린우리당 김성남 후보와 한나라당 정종근 후보, 한나라당 김종천 후보, 한나라당 최기범 후보, 무소속 김영오 후보, 무소속 윤석준 후보 등 7명이 등록을 마쳤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포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열린우리당 김연후보와 한나라당 김영자 후보, 한나라당 안경희 후보 등 3명이 등록했다.

한편 이날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포천시청 3층 회의실에서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 서명식을 갖고 공명선거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반드시 1명 후보에게 기표해야 유효

포천시의원 선거 2명 기표 무효처리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기초의원 선거가 광역화됨에 따라 한 개 투표용지에 2명 이상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2명을 선출하는 포천시의원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 및 3명을 선출하는 '다'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1명만 기표해야 한다. 동일 투표용지에 2명 이상을 기표하게 되면 무효처리 된다.

만 19세(87년6월1일 이전 출생자)까지 투표권이 확대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6개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하게 된다.

1차로 포천시시장과 비례대표 포천시의원, 지역구 포천시의원

투표를 실시하고 2차로 경기도지사 및 지역구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경기도의원을 각각 투표해야 한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포천시의원 선거에 있어 2명 이상을 선출한다고 해서 2명에게 기표하면 무효 표가 된다”면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포천시의원을 선출할 때는 반드시 1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031-535-2243번으로 하면 된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여러분의 관심이 나라를 지킵니다!

- 간첩 및 거동수상자, 불온문건 소지자
- 총기·탄약 등 폭발물 소지 및 판매자
- 비밀 · 군사자료를 유출하거나 은닉한 자

신고전화 : 080-777-1113
535-3113, 6113

인터넷 : www.dsc.mil.kr

신고 · 상담은 가까운 기무대로

입후보자 국민의무 이행 '양호'

중앙선관위, 전과기록 등 신상공개 결과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포천시 시장 후보를 비롯한 경기도의원 후보, 포천시의원 후보 등 31명은 전과기록이나, 병역미필자, 체납세금 등에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후보자로부터 제출 받은 재산상태와 병적기록부,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후보로 등록

한 31명 가운데 현재 체납은 한 명도 없다.

다만 체납 후 납부한 후보는 시장원 시장후보와 이우형 경기도의원 제1선거구 후보, 포천시의원 '가' 선거구 김민호 후보, '나' 선거구 이부휘 후보, 포천시의원 비례대표 김영자 후보 등 5명으로 나타났다.

또 입후보자들의 병역관계는 국방의무 대상자 28명 가운데 2명이 군복무를 하지 않았으며, 전과기록

은 1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신고한 재산상태를 살펴보면 포천시의원 '가' 선거구에 출마한 이강립 후보가 26억4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1억5천만원을 신고한 포천시의원 '나' 선거구 유성현 후보, 포천시의원 '다' 선거구 김영오 후보가 11억2천만원을 신고했다.

또한 재산이 가장 작은 후보는 포천시의원 '나' 선거구에 출마한 이병욱 후보로 -4천79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관련기사 2면>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Pride 5.31 5월 31일은 지방선거일 - 함께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작은 투표용지 한 장에 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 고장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일,
나아가 더욱 큰 대한민국을 일구는 일,
바로 당신의 한 표에서 시작됩니다.
5월 31일, 대한민국이 당신의 한 표를 기다립니다.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